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아들에 대한 증거 II

(요 5:30-47)

이중윤 원로목사

본문에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입증하는 것에 대한 네 가지 증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증언과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 자신의 증언과 성경 자체의 증언입니다.

3. 예수님 자신의 증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5:36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자연을 다스리고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적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역사(work)는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의 목적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계시의 사인(sign)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계시와 떼어놓고 생각할 때에 그 기적은 많은 과오를 가져옵니다. 기적을 일으켰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연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자연의 주가 되심을 보여 주십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세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둘째는 치유 기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생명권을 가지신 생명의 주 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적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권능의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가지는 말씀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4. 성경의 증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5:39)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전부는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구약의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할 목적으로 기록된 선지자적인 증언입니다.

기적의 증거는 행위 언어입니다.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5. 유대인들의 세 가지 무지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5:37-38)

(1)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므로 모세와 절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논지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법인데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가짜로구나” (요 10:27, 17:8)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변증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2)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함

창 32:30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다고 하시면서 참 이스라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짜라는 말입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음

예수님은 또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도 않았으니 너희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로구나” 유대인들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변증이 놀랍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도 들어야 되지만 동시에 순종도 해야 됩니다. 눈으로는 수 없이 보고, 귀로도 수없이 들었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일천만 기독교인 살고 있는데 죄악은 여전히 무섭게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일천만이 아니 백만이, 천 명이 아니 백 명만이라도 아니 열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한국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의와 부정을 배격해야 합니다. 전에는 교회가 사회의 양심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서 하는 행정이 사회의 행정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민주주의가 교회에서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든 면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상관없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개인이 살고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항존직 은퇴식·시상식·특별제직회 연기/예·결산공의회 순연

송구영신 예배 취소

당회는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인하여 매년 마지막 주일 개최되던 항존직 은퇴식과 각종 시상식 및 내년도 예·결산을 위한 특별제직회를 추후 교회에서의 대면예배가 가능할 때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하였다. 항존직

은퇴자 명단은 8면을 참조 바란다. 이에 따라 연초 예정된 예·결산 공의회도 순연되게 된다. 아울러 방역단계가 완화되지 않는 한 송구영신예배도 별도로 갖지 않기로 하였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도연·이선주 유현주 권영승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① 2020년은 사회법과 총회에서 많은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중심이 되어 주신 당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② ③ ④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스테반회 임원들과 권사회 임원들, 샬롬 권사회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례자



⑤ 1부 계수위원들



⑥ 2부 계수위원들



⑦ 3부 계수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⑧ 찬양예배 안내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⑨ 신앙강좌부 교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⑩ 새가족부 교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⑪ 그레이스핸드벨콰이어 모든 대원에게 감사드립니다



⑫ 할렐루야찬양대 모든 대원에게 감사드립니다



⑬ 청년 1·2부 모든 회원에게 감사드립니다.



⑭ 차량봉사부 모든 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순례자는 2020년을 마무리하며 수고한 모든 부서를 방문하여 기념촬영을 진행 중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으로 방역지침이 강화되고 격상하며 비대면예배로 전환됨으로 사진 촬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촬영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부서와 사진 촬영을 진행 못한 모든 부서 및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0년 서울교회 10대 뉴스

1.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담임목사 자격상실에 관한 사회법과 교단법의 연이은 판결이 선고되다

2020년은 사회법에서나 교단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많은 한 해였다.

먼저 1월 14일(화) 총회재판국은 박노철 목사 출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더구나 2019년 12월 19일(토) 총회 헌법개정으로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청구가 불가하게 됨에 따

라 박노철 목사는 더 이상 교단법적으로 불복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5월 19일(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노철 목사 출교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9월 28일(월) 서울고등법원은 박노철 목사 측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박노철 목사는 사회법상으로도 서울교회 담임목사 자격과 서울강남노회 소속 목사 자격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서울강남노회도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되었다.

2. 코로나19 사태로 주일 정규 예배 온라인 예배 대체와 연관 후속조치 이어지다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질병으로 고통받은 한 해였다. 이에 우리 교회는 질병의 확산을 막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과 다양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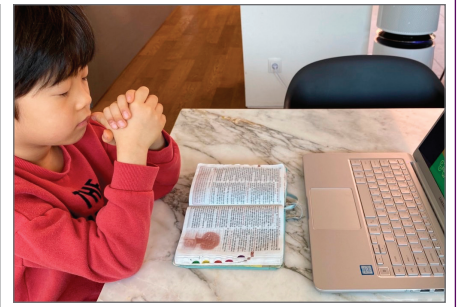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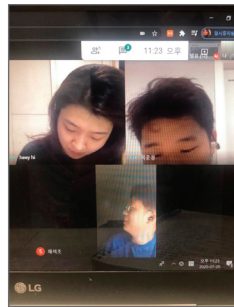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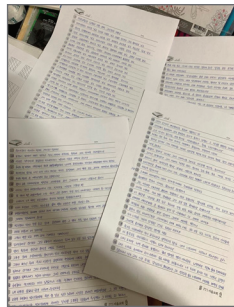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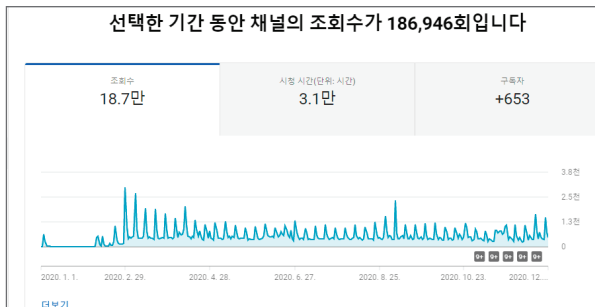
① 온라인 예배 :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던 2월 말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였으며 12월 20일(주)까지 온라인 예배 참석자는 186,946명에 이른다.

②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기도회 : 교회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3월 29일(주)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로 선포하고 3월 30일(월)-4월 4일(토):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기도회를 가졌다.

③ 새로운 교회 교육 방식을 시도 :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자 교회학교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시도한 한 해였다. 온라인 주일예배 뿐 아니라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사랑의 택배,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달란트 시장, 청년부의 온라인 성경필사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④ QR 교인출입증 발급 : 교회 방역과 교인 입출입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전혀 없는 우리 교회 자체 QR 교인출입증을 개발하여 전 교인에게 보급, 시행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총회재판국 장로증원무효(재재심)판결 효력정지가처분 부적법 각하하다

박노철 목사 측이 지지 장로 소수의 한계를 벗어나 당회를 장악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지지 교인들 15명을 장로로 불법 선출한 행위에 관하여, 총회재판국이 당회를 거치지 않고 지지

교인들만 모여서 개최된 불법 공동의회를 통해 이루어진 장로선출은 무효라는 재재심판결에 이어 3월 18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노철 목사 측의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이○창, 은○장, 강○훈, 박○권 등 15명은 더 이상 교단법이나 사회법상 서울교회 장로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4. 코로나19 사태에도 열린 2020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열리다 : 6월 18일(목) ~ 6월 25일(목)

코로나19 사태에도 흥해작전은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는 주제로 2020년에도 계속 되었다.

6월 6일(토) - 6월 17일(수)는 기존 새벽기도회와 같이 온라인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6월 18일(목)-25일(목)은 서창원 목사를 강사로, 특별

새벽기도회가 교회에서의 대면예배로 진행되었다.



5. 교회 주거재 은행 재정사용이 불가한 상황 중에서도 예정된 선교와 구제 사역은 지속되다

2017년 박노철 목사 측의 주거재 은행 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으로 인한 인출 불가능 사태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해외선교사 등 예정된 선교사역과 지원을 계속하였다.

중 하나인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실천으로 화재로 전소된 강원노회 화방교회(김인동 목사 시무)와 서울동북노회 사릿골교회(이석범 목사 시무)에 긴급 구제도 실시하였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노철 목사 측에 서울교회 건물반환 및 그 동안의 손해액 배상 판결하다

박노철 목사와 지지교인들은 2018년 3월 9일 (금) 저녁 70여 명의 불법 용역을 고용하여 서울 교회를 기습 점거한 후 1층을 제외한 2층 이상과 지하주차장 등 거의 모든 건물 출입을 강제로 막아, 당회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용역에 의지한 건물점거를 풀어 다수 교인들의 교회건물 사용권 보장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 당회 허락도 없는 예배를 진행하면서 교회 부동산을 자신들만 일방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당회는 부득이 불법점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8억여 원과 향후 반환 시까지 매월 1억 2천만원 씩 배상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 직후 박노철 목사 측은 점거 중이던 교회건물 반환하여 서울교회 성도들은 감격스런 교회 대청소와 대대적인 정비로 교회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게 되었다.

7. 서울강남노회, 서울베다니교회 권용평 원로목사를 서울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다

2019년 12월 10일(화) 총회재판국으로부터 박노철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이 선고된 직후 당회 과반수 당회원들은 교단헌법에 따라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교회 당회장 결원을 이유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였으나 서울강남노회는 여러 차례 거부하였다.

이에 총회에까지 임시당회장 파송 지시를 청원하였고 총회는 즉각 이를 받아들여 서울강남

노회에 이를 지시하는 긴급 행정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서울강남노회가 계속 이행하지 않자 총회는 추가로 2, 3차 행정지시를 연달아 내리게 되었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자들을 의법조치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까지 하였다.

서울강남노회는 10월 20일(화) 임원회 결의에 따라 서울베다니교회 권용평 원로목사를 임

시당회장을 파송하기에 이르렀다.

소속 노회의 지교회 임시당회장은 당회장 결원 시 당회장권을 온전히 행사 가능한 지위로서, 이로 인하여 서울교회는 그동안 행사가 불가능했던 수십억 교회 주거래 은행 예금 사용이 가능해졌고 동시에 내년도 향존직 선거와 임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담임목사 청빙 등 각종 행정적 준비가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

8. 서울교회 본당 재입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8억여 원과 향후 반환 시까지 매월 1억 2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전부 승소판결 후 교회 건물이 완전히 반환되면서 지난 10월 25일(주일) 본당 재입당에 앞서 아침 8

시 20분에 2층 정문에서 간단한 기도회를 가졌다. 이종윤 원로목사를 선두로 감격스런 본당 재입당의 기쁨을 나누고 교회설립 29주년 행사를 마쳤으며 내년도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재창립

수준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9. 코로나19 사태에도 계속된 기도와 말씀운동, 2020 사명자대회

교회설립 기념 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2020 사명자대회가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10월 4일(주) - 11월 22일(주) 50일

간 진행되었다.

2020 사명자대회는 매일 평균 197명, 연 인원 8,310명이 매일 교회와 각 처소에서 자율기도에 참석하였으며 11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손달익 목사(서문교회 담임목사)를 감사로 모시고 은혜 중에 진행된 특별새벽기도회의 참석 성도는 성인 누적 1,394명, 주일학교 220명으로 총 1,617명이 참석하였다.



10. 이종윤 원로목사와 오정수 장로에 대한 명예회복의 전기가 마련되다

9월 14일(화)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오정수 장로 등 7명 전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또 12월 15일(화) 총회재판국은 이종윤 원로목사에 대한 견책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함으로써 서울교회 분쟁으로 상처 입은 두 분의 명예

회복 전기가 마련되었다.

장로 은퇴를 앞두고

저의 신앙의 역사와 함께 한 서울교회



오광환 장로

은퇴를 앞두고 이 글을 쓰려하니 지난 30여 년간 서울교회와 함께 했던 모든 날들이 생생히 스쳐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앞에 새삼 감격하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역사는 서울교회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년기에 처음으로 교회당에 나가 주님을 알고 예배하며 청년의 때를 보냈지만, 산업화로 여념 없던 70, 80년대를 보내면서 교회의 사역을 힘써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 다. 사회생활을 핑계로 주일 성수만을 겨우 해내던 저의 신앙도 그렇게 미온한 호흡만을 유지해 낼 뿐이었습니 다.

이사와 함께 아이들을 가까운 역삼동의 한

교회로 등록시키고, 아이들을 기다리고자 참여 했던 주일 예배 중에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이 중용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벅찬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저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섬기던 교회를 어렵게 정리하고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주일을, 예배를 사모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가운데 서울교회가 설립되게 되었고, 탄식과 눈물과 간구가 기도를 통해 웃음과 환희와 감사로 화하는 체험을 서울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매일 같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교육부서와 찬양대부터 목회자 세미나, 김치 세미나 같은 큰 행사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와 체육대회, 다락방에 이르기까지 저의 중년의 기억들은 온통 서울교회의 역사의 편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겪었던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

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때에 만나 시 회복시키실 것이라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나의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세워 오시던 그 역사를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익한 종이 장로라는 넘치는 직분을 받고서 오래지 않아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서울교회를 통해 마땅히 맺었어야 할 열매들을 거두어 들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통회할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시고 세워 나가실 서울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고대하며, 비록 수발이 되어 앞선에서 직접 뛰지는 못할지라도, 삼척의 모래 사장에서 힘을 다해 줄다리를 하던 것 마흔 넘은 젊은 집사의 열정과 사랑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뜨겁고 씩 없는 기도로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2010년 : 관리위원회 서기, 차량관리부 부장 / · 2011년 : 찬양위원회 위원, 할렐루야찬양대 부장, 교회갱신연구원 원감
- 2012년 :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2국 국장, 12교구 교구장, 흥해작전 부장
- 2013년 : 12교구 교구장, 구제위원회 위원, 재정위원회 서기, 출판국(순례자) 부장
- 2014년 : 건축 및 건축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재정위원회 서기, 구제위원회 회계, 출판국(순례자) 부장
- 2015년 : 찬양위원회 위원, 할렐루야찬양대 대장, 구제위원회 위원, 출판국(순례자) 부장, 사명자대회 본부장
- 2016년 : 찬양위원회 위원, 할렐루야찬양대 대장, 구제위원회 위원, 제직회 감사 / · 2017년 : 안식
- 2018년 : 건축 및 건축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5교구 교구장, 찬양위원회 위원, 임마누엘찬양대 대장, 제직회 감사
- 2019년 : 건축 및 건축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교구위원회 위원장, 15교구 교구장, 찬양위원회 위원, 임마누엘찬양대 대장,
- 2020년 : 재정위원회 위원장, 교구위원회 위원장, 구제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 16교구 자문위원, 건축 및 건축물관리위원회 위원, 제직회 회계, 장학회 회계, 흥해작전 본부장

나의 신앙의 버팀목이신 세 분의 지도자



조정식 장로

우리는 어느 해보다 뜻 깊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오랜 분쟁의 시간 동안 지난 2년간 본당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다가 저의 장로 은퇴에 즈음하여 본당을 회복하고 은퇴식도 본당에서 하게 되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반가운 얼굴들을 뒤로 하고 또 다시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2003년 장로 장립을 받고 어느덧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불어 부족하고 미숙한 저를 관용과 이해로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모태신앙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제게는 세 분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세 분은 이중용 원로목사님과 아버지와 기도하시는 어머니이십니다. 반포동 예배당 시절 이중용 원로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로마서 강해 설교는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갖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님으로부터 들던 교훈입니다. 아버님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게 유언처럼 “아범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러니 예수 잘 믿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또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저는 매사를 기도로 풀어나가며 하나님의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저는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며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유일 신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성경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사야 41:9~10절 말씀으로 아들이 혹 어려울 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던 어머니가 지금도 그림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지도자가 계셨기에 나의 신앙 생활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운 지난 몇 년간 성도님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송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위해 시마다 때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은퇴를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 김영식 권사와 함께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서울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2005년 : 차량관리부 부장 13교구 교구장
- 2006년 : 선교위원회 위원, 교회갱신위원회 원감, 상조부 부장, 목회자세미나 원감, 찬양위원회 위원, 갈렘찬양대 대장
- 2007년 : 금요철야 부장, 선교위원회 위원, 예전부 부장, 주부대학 학감, 교구위원회 회계, 13교구 교구장
- 2009년 : 13교구 교구장, 관리위원회 서기, 차량관리부 부장, 성경공부 차량부 / · 2010년 : 성경대학 부장, 13교구 교구장
- 2011년 : 찬양위원회 위원, 베들레헴찬양대 부장, 장년4부 교사, 교구위원회 회계, 13교구 교구장, 흥해작전 부장, 성경대학 부장
- 2012년 :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3국 국장, 교구위원회 회계, 13교구 교구장, 건축 및 건축물관리위원회 위원,
- 2013년 : 찬양위원회 위원, 베들레헴찬양대 대장, 교구위원회 서기, 13교구 교구장, 건축 및 건축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베들레헴찬양대
- 2016년 : 찬양위원회 위원, 임마누엘찬양대 대장, 전도위원회 위원, 설교사역도교부 부장, 베들레헴찬양대
- 2017년 : 임마누엘 찬양대 대장, 건축 및 건축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성우 집사
(유치부 부장)

드린 하반기와 분기 시상품, 연간 개근상과 정근상, 성탄 선물과 수료 선물, 졸업 선물이 각

살롬!

영·유아·유치부 어린이들과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살롬의 축복이 항상 충만하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영·유아·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우리 교사들이 정성껏 준비하시어 보내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악으로 가득찬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 오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오직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사랑하는 영·유아·유치부 어린이들이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일평생 정직하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께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롬



안녕하세요 ~ 혜운이 엄마예요~
상장과 수료증, 선물 잘 받았어요 ^^ 혜운이는 지금 열심히 복음비행기를 꾸미고 혜슬이한테 설명도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 교회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ππ 각자의 처소에서 행복할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유치부 유다연 엄마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다연이 유치부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졸업장, 어린이 성경, 블럭, 달력 등 하나 하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보내주셨어요. 다연이가 너무 좋아합니다.♡ 올 한해 너무도 힘들었는데도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많은 헌신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섬길수 있게 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된 성탄절 되시고 2020 한 해 모두들 건강하고 은혜롭게 잘 마무리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



채승호 성도
(청년2부 회장)

살롬!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모두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청년부 회장으로 임명이 되어 정신 없지만 보람찬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정 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12월 초에 대림절을 맞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성탄나눔 행사를 전체 식구들이 앉아서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부의 자매 한명이 우연히도 '베이비박스' 사역과 관련되어 후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선물처럼 '베이비박스' 물품 후원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2009년도부터 주사랑공동체가 실시한 영·유아 유기 방지를 위한 봉사사역입니다. 10대, 20대 초반에 아이를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난 뒤 너무나도 삶이 어려워 아기들을 유기하는 건수가 연간 수 백건에 이릅니다. 베이비박스는 미혼모, 미혼부가 생명을 버리지 않고 주사랑공동체에 아이를 맡기도록 하여 영·유아를 살리는 사역으로 미혼모와 미혼부가 다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리신 영·유아의 수는 1,803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생명이 베이비박스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다시 이러한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 미혼부 100가정을 지속적으로 생필품, 금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의 담당 사역자분들도 모두 목사님으로 순수한 유아를 살리고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셨으며, 저희 청년들이 이러한 가정에 물품을 보내기 위한 구급 키트를 만드는 것에 봉사할 거리가 많아 저희가 앞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는 생각도 깊게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청년 1, 2부 부원들 및 선생님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약 158만 원의 금액으로 급하게 필요한 기저귀, 마스크(유아용, 성인용), 리챔 및 참치캔들을 구매하고 주사랑공동체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는 추운 겨울날 어렵게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미혼모, 미혼부 가정에 전달될 예정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 주신 주님의 말씀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 교회뿐 아니라 새로 태어난 생명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들에게 주님이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2020 항존직 은퇴자명단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장로와 집사·권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은퇴장로 : 조정식 오광환
- 은퇴집사 : 박광서 박희서 안재선 이승우 이영조 임선철 김광욱
- 은퇴권사 : 고영숙 박선자1 박숙 김남순1 김선이 김인숙2 나상민 박영옥 이영희 이옥희 주경자 최영란 최현인 김영식

다락방 리더훈련 겨울방학

다락방 리더훈련이 12월 23일(수)-2021년 2월 24일(수)까지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방학기간 동안 다락방장과 부다락방장은 다락방원들을 잘 돌아보고, 유고시에 즉시 교구목사에게 보고 바란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 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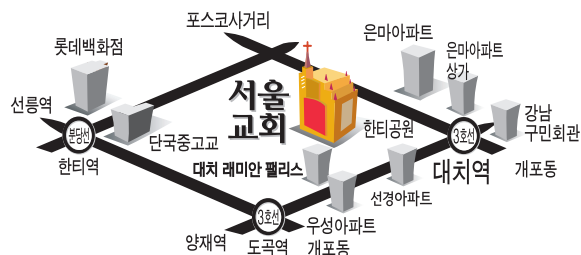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고난 중에도 2020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2021년에는 더욱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성령께서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 예배	오전 9시
	II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예배	오전 11시
	II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